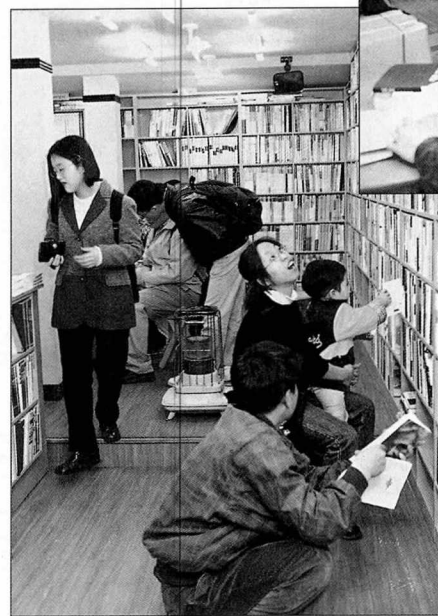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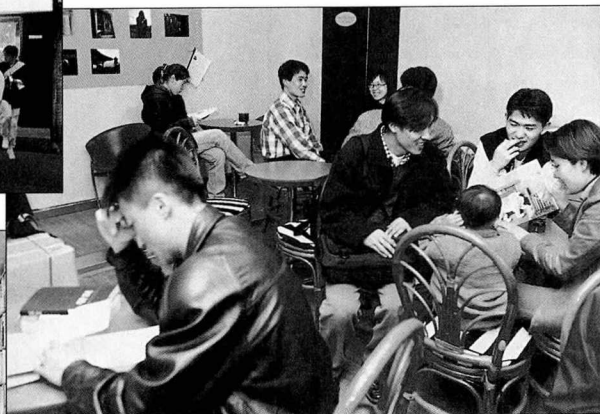


대학가 서점문화를 새롭게 바꾼다

북카페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논장' 서점



- 지난 3월 3일 개점식에는 대학생들의 사물놀이로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다(위).
- 차를 마시며 책도 읽을 수 있는 북카페는 '논장'의 변신 중 가장 눈에 띈다(가운데).
- 60평 규모로 늘린 매장에는 지역주민도 볼 수 있는 폭넓은 책들이 갖춰져 있다.

우누리에 통신방 운영, GO 논장)도 마련했다. 생활에 지친 고객이 관심분야에 대해 서로 정보를 나누며 새로운 인간 관계를 확대하는 장으로서 자리도 마련했다.

독자들과 적극적인 교감을 나누기 위해 통권 15호를 발간한 부정기 소식지 《반갑다 논장》은 4월부터 월간으로 바꾼다. 저자 인터뷰·서평 등 책과 관련한 내용과 더불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할 계획이다.

준비중인 인터넷 사이버 서점(프로그램 개발중) 또한 논장의 개방적인 운영체계를 보여준다. 각종 도서정보를 올리는 한편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회원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열린 서점의 지향점은 지역문화에도 뻗어 있다. 논장을 중심으로 책 읽는 문화, 토론문화, 지역공동체 문화

를 일구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한다.

사회전체에 건강한 문화의 뿌리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다양한 관심과 취향에 따라 문화가 생겨난다. 문화는 상대적 진보성과 공동체적인 성격을 띤 것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논장은 서점내 문화, 지역 문화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건강한 문화를 뿌리내리는 작은 씨앗인 셈이다.

문화 창조와 교감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지임하며 재출발하는 논장의 성패는 곧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다른 중·소형 서점들의 진로를 대변한다. 전문서점의 만능적인 논장의 움직임에 많은 출판인의 눈길이 쏠리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박성경씨는 "열린 서점을 지향하며 새로운 문화운동을 전개하는 논장을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길 바란다"며 성원을 부탁했다.

—오완진 기자

인문사회과학 전문서점 '논장'이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재출발했다.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 진입로에 북카페 형식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하고 새 등지를 튼 논장은 지난 3월 3일 조촐한 개점식을 가졌다.

79년 광화문에 처음 모습을 보인 논장은 우리 사회의 진보적 담론을 이끈 상징의 공간이었다. 80년대 사회운동의 한 지류를 형성했던 논장은 84년 명륜동에 지점까지 내며 변성을 구가하는 듯했지만, 운영자가 자주 바뀌면서 부침이 컸다. 지금의 논장은 97년 출자자(계좌당 10만원)를 모집하고, 지난 1월 이를 180명(연내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확대하여 60평 규모로 재출발했다.

새로운 서점문화운동으로 '생활 속의 연대'를 실현하려는 논장의 사람들은 대중운동의 퇴조와 인문사회과학의 위축, 그리고 중소형 서점이 마구 쓰러지는 상황에서 만만치 않은 도전에 나섰다. 그러나 공동운영진인 이재필(33)·정하경(28)·박성경(27)씨

는 낙관적이다. 하루 3교대로 아침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문을 열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다부진 열의에서부터 젊은 패기를 느낄 수 있다.

열린 서점 지향해 문화운동 전개

논장은 인문사회과학 중심의 기존 성격을 유지하되, 좀더 진보적인 담론을 담은 책들을 섬세하게 분류하고 소설· 아동 등 기타 서적과 음반·잡지 등도 함께 취급한다. 폭넓은 진보적인 책들을 진열해놓겠다는 것 자체도 여유로운 변화인데,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도 눈에 띄는 변신이다. 논장의 파격적인 변화 중 돋보이는 것은 매장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카페.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북카페는 누구나 마음놓고 드나들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다.

서점운영을 통해 형성된 문화유산답사·영화 등의 소모임을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사회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연대의 장(나

젊은 패기로 문헌 논장의 사람들



만행적인 이재필씨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정하경씨, 왼쪽에 박성경씨가 '논장'의 공동운영을 맡고 있다.

80년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번창했던 인문사회과학 서점들은 이데올로기 퇴조와 가벼움으로 치달려온 90년대의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대량 고사했다. 인문사회과학 전문서점에게 현실에 기초한 서점운영의 틀을 갖추는 일이 절실한 과제로 남은 가운데 '논장'의 새로운 출발은 여러 의미를 던진다.

97년부터 논장을 운영해온 이재필씨(33)는 공동운영진의 만행적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겠죠. 전문서점의 장점을 살린 복합문화공간

으로 탈바꿈해야 대형서점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포함해 대학로를 찾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인데, 지역에 하니즘 있어야 할 공간으로서의 전범을 보여주겠다며 버린다.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 경영 일선에 뛰어든 정하경씨(28)는 "북카페 형식의 서점들이 지역마다 들어서 양서를 읽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사회적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책이 생활 속에 융화될 때 그 사회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아직 가치 있는 고전과 좀더 진보적 담론을 담아낸 양서, 그리고 정보화 사회를 바르게 이끌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건강한 사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출판사에서 영업일을 하다가 숙명여대 앞 사회과학 전문서점(숙명인)을 경영했던 박성경씨(27)는 독자경영에 한계를 느끼고 논장에 참여한 경우다. "청년으로 성장한 논장이 우리 사회의 진보적 담론을 이끄는 공간으로 재출발합니다. 우리 같은 중소형 서점이 많이 생겨 건전한 사회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패기로 문헌 공동운영진의 활기찬 모습은 정체성과 활동성을 겸비한 진보적 공간 논장을 더욱 푸르게 만든다. 이 봄 새날을 맞는 싹처럼.(오완진)